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프로그램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배병윤 (한라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국 문 요 약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진 현시대에 대학생들에게 창업은 취업의 대안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창업 육성을 위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창업동아리를 교과 프로그램으로 창업 강좌 등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가정신이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프로그램(창업동아리 참여, 창업강좌 수강) 통한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창업공모전 참여 등 창업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연구는 일부 있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많지 않고,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프로그램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실증연구는 국내외 연구에서 찾아보고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동아리와 창업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학 1군대를 선정하여 전체 재학생에게 온라인 설문 배포 후 회수된 127명의 설문을 실증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인 진취성, 위험감수성은 각각 창업의지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혁신성은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둘째, 대학생의 창업교육프로그램의 하위요인인 창업동아리 참여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창업강좌 수강은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창업행동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넷째, 창업의지는 위험감수성, 창업동아리참여 각각의 요인과 창업행동과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위험감수성을 높이고, 창업동아리 참여를 통하여 창업의지를 높이고, 이를 매개로 하여 창업행동에 도달 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기업가정신, 창업교육프로그램, 창업의지, 창업행동

1. 서론

국내의 경제상황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로 청년 실업률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 창업은 단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고용이며, 성공 창업으로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원천이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진 현시대에 대학생들에게 창업은 취업의 대안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다.

현재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선·후행 변수의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양준환(2016)은 자기효능감과 관계적 지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인숙·나영아(2014)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간의 관계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재훈(2013)에 의하면 창업교육 및 각종 창업관련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준다고 발표하였다. 김정곤·양동우(2016)는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공모전 참여 동기를 통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김장호·금융필(2020)

은 청년 창업의지의 영향요인과 창업행동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 하였다. 배병윤(2021)은 대학생 대상 실증 연구를 통해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목표지향성이 창업동기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Haddad et al(2021)은 TPB모델에 기반 하여 비즈니스 스쿨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환경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Barba-Sánchez et al(2022) 또한 TPB모델에 기반 하여 환경 의식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기업가정신은 혁신적이고 진취적이며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Miller, 1983).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진 현시대의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기업가정신 역량의 함양은 상당히 중요하다.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이 자기효능감, 관계적 지원, 창업교육프로그램, 창업공모전 참여동기, 창업행동, 목표지향성, 학습환경, 환경의식 등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선·후행 변수를 사용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다(양준환, 2016; 이인숙·나영아, 2014; 이재훈, 2013; 김정곤·양동우, 2016; 김장호·금융필, 2020; 배병윤, 2021; Haddad et al., 2021; Barba-Sánchez et al., 2022).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선·후행

* 주저자, 한라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byungyun.bae@halla.ac.kr

·투고일: 2022-07-10

·1차 수정일: 2022-08-10

·2차 수정일: 2022-08-18

·3차 수정일: 2022-08-22

·게재확정일:2022-08-26

변수를 사용한 실증연구가 이와같이 다수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동아리 참여와 창업강좌 수강을 주요 선행 변수로 하여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실증 연구는 국내·외 문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프로그램(창업동아리 참여, 창업강좌 수강)이 창업의지를 매개로 하여 창업행동에 도달하는지의 실증 연구는 현시점에서 대학생 창업 활성화의 실증적 근거 자료를 위해 매우 필요한 연구이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창업 육성을 위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창업동아리를 교과 프로그램으로 창업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동아리와 창업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학 1군대를 선정하여 전체 재학생에게 온라인 설문 배포 후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가설설정과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통계패키지 SPSS18과 AMOS18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성분석, 요인분석, 판별타당성 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첫째, 대학생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 창업교육프로그램의 하위요인인 창업동아리 참여와 창업강좌 수강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후 논의는 이론적 배경을 통한 가설설정으로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연구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증 분석 결과 제시 후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기업가정신은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실증 연구에서 Miller(1983)의 계산된 위험성을 감수하고, 시장 상황에 진취적으로 대응하며 제품과 시장의 혁신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정의한다(Miller, 1983; Stevenson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업가정신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가정신 하위요인을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3가지로 구분하였다(Miller, 1983; Stevenson et al. 2007; Helm & Andersson, 2010). 혁신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시키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역량을 의미하며, 진취성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말하며, 위험감수성은 기회를 포착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감히 의사결정을 하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Miller, 1983).

기업가정신은 조직변수(EO)이며, 이를 개인변수로 활용할 때 이인숙·나영아(2014)의 연구와 같이 기업가정신을 한 요인으로 실증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김정곤·양동우(2016)과 같이 Miller(1983) 연구를 토대로 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3가지 하위요소를 적용한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하위요인 각각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어떤 요인이 영향을 더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3가지 하위요인을 적용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은 창업자의 대표적 개인특성 변수로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신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실행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진취적으로 행동하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정신이 탁월한 대학생들의 창업의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의지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창업을 행동으로 옮길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 창업을 하려는 심리적 지향성이다(Bird, 1988; Thompson, 2009; Tran & Von Korflesch, 2016). 창업은 실패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며,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Ajzen, 1991). 즉, 창업은 일상적 행동과 달리 강한 의지가 동반되어야 하며, 계획과 준비의 첫 번째 단계가 창업의지라고 말할 수 있다.

창업자에게 창업의지는 비즈니스 추진력을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찾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Anjum et al., 2020). Anjum et al.(2020)는 파키스탄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과 창의력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기업가정신 선행연구에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Smith & Miner, 1983; 김정곤·양동우, 2016). 김정곤·양동우(2016)는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창업공모전 참여동기를 매개로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대학생의 혁신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대학생의 진취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대학생의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창업교육프로그램과 창업의지

창업교육은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고, 전문가 조언을 통하여 창업을 실행했을 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Cho & Lee, 2018; Lussier, 1995; Vesper & Gartner, 1997).

한국 대학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교과과정과 비교과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창업교육은 창의적 인재 육성과 기업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거나 대학생 창업을 통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있다(박재환·안태욱, 2016).

대학알리미(2020) 내 정보공시를 통해 창업교육에 대한 국내 대학의 평가 기준을 확인 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교과과는 창업강좌를 비교과로는 창업동아리, 창업캠프 등의 실적을 공시하여야한다. 창업교육의 현황(2018년)을 보면 4년제 대학에서 총 13,905개의 창업교과목이 개설되고 있었으나 실습형 강좌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창업 강좌 이수학생 중 창업자 수는 0.41%, 창업동아리 참여 학생 중 창업자 수는 3.71%로 높지 않다(이성호 외, 2020). 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위해서는 실습형 강좌 개설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창업강좌와 창업동아리 등의 창업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위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프로그램을 비교과과정으로 창업동아리 참여를 교과과정으로 창업 강좌수강으로 구분하였다. 비교과과정으로 대학에서는 창업동아리 지원을 통하여 학생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멘토링, 창업준비 공간,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여 대학 창업문화를 선도하고 창업 활동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교과과정으로 기업가정신, 창업프로세스, 실전창업, 디자인씽킹 등 다양한 창업 강좌를 교양 또는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

현재 대학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주로 창업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창업동아리를 교과로 창업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동아리 참여와 창업강좌 수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창업의지가 높아져 창업행동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실증 연구를 진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창업동아리 참여와 창업강좌 수강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대학생의 창업교육프로그램 참여는 창업의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대학생의 창업동아리 참여는 창업의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대학생의 창업강좌 수강은 창업의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창업의지와 창업행동

의지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의해 형성된 마음의 상태로 행동을 하려는 신념이며 자기 자신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Grant, 1996; Ajzen 1991). 즉, 의지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 선행 단계이며, 의지의 확고하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며, 이후 행동을 통한 미래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창업의지는 예비창업자의 초기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기업가 정신 문헌에서 개인 특성 변수로 창업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사용된다(Krueger, et al., 2000). 창업의지는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세워 미래에 창업을 준비하려는 심리적 태도이다(Bird, 1988; Tran & Von Korflesch, 2016; Haddad et al., 2021).

창업은 강한 의지가 동반되어야 하며 창업 계획과 준비의 첫 번째 단계가 창업의지이다(Ajzen, 1991). 이러한 창업의지는 창업을 위해 자금을 적립하고, 사업 아이템을 기획하는 등의 창업 행동에 이끌 것이다(Lerner et al., 1997).

Kim & Hunter(1993)가 태도-행동 연구의 메타 분석을 통하여 전반적인 태도와 행동의 관계($r=.79$)를 밝혔다. 또한 김장호·김용필(2020)은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창업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창업의지의 매개효과

기업가정신은 계산된 위험성을 감수하고, 진취적으로 대응하며 혁신을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Miller, 1983). 본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을 Miller(1983)의 정의에 따라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창업교육프로그램을 비교과과정으로 창업동아리 참여를 교과과정으로 창업 강좌수강으로 구분하였다.

창업의지는 창업을 행동으로 옮길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세워 창업을 하려는 마음의 상태이다(Bird, 1988; Tran & Von Korflesch, 2016). 창업행동은 창업을 위해 자금을 적립하고, 사업 아이템을 기획하는 등의 행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기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창업행동의 관계에서 창업의지가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창업교육프로그램(창업동아리참여, 창업강좌 수강)과 창업행동의 관계에서 창업의지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기업가정신과 창업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H4-1: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혁신성과 창업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H4-2: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진취성과 창업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H4-3: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위험감수성과 창업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H5: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창업교육프로그램과 창업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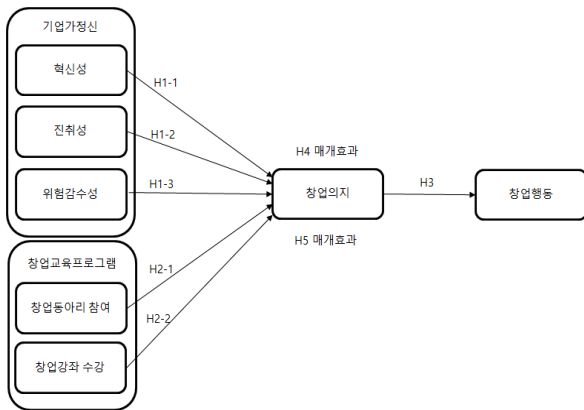
H5-1: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창업동아리 참여와 창업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H5-2: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창업강좌 수강과 창업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에서 앞서 논의된 이론적배경과 가설설정을 통하여 <그림 1>의 연구 모형을 개발하였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설문지 개발하였고 파일릿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이후 창업동아리와 창업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학 1군대를 선정하여 전체 재학생 대상으로 2021년 11월~12월 온라인 설문 배포 후 회수된 127명의 설문을 실증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변수 측정 및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은 자신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실행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진취적으로 행동하고 계산된 위험은 과감히 감수하는 성향으로 정의한다. 기업가정신의 하위 구성개념으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있다(Miller, 1983; Covin & Slevin, 1990). 본 연구에서 Miller(1983)와 Covin & Slevin(1990)이 개발하고 국내 연구에서 김정곤, 양동우(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기업가정신 척도

로 혁신성 3문항, 진취성 3문항, 위험감수성 3문항 총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대학생의 창업교육프로그램 참여는 비교과 주요 프로그램인 창업동아리 참여와 교과 프로그램인 교내 창업강좌 수강으로 정의한다. 창업동아리 소속 유무와 교내 창업 강좌 수강 횟수를 조사하였다.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미래에 창업을 준비하려는 심리적 태도로 정의 할 수 있다(Bird, 1988; Haddad et al., 2021). 창업의지는 Liñán et al.(2011)와 Haddad et al.(2021)의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대학생의 창업행동은 향후 사업 창출을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상태로 정의 할 수 있으며, Lerner et al.(1997)과 김장호·금융필(2020)의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 하였다.

IV. 실증 분석 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국내 대학의 대학생에게 설문을 배포하고, 회수된 127부 설문을 통계 분석하였다. <표 1>은 표본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본의 성별은 남성 83명(65.4%), 여성 44명(34.6%)이고, 학년은 1학년이 32명(25.2%), 2학년이 37명(29.1%), 3학년이 34명(26.8%), 4학년이상이 24명(18.9%)로 나타났다. 전공은 공학분야가 64명(50.4%), 상경분야가 14명(11%), 인문분야가 37명(29.1%), 문화예술분야가 9명(7.1%), 스포츠분야가 3명(2.4%)로 확인되었다. 창업동아리 소속여부는 소속 안 됨이 114명(89.8%), 소속됨이 13명(10.2%)로 나타났다. 교내 창업강좌 수강횟수는 수강한적 없음이 65명(51.2%), 1과목 53명(41.7%), 2과목 7명(5.5%), 3과목이상 2명(1.6%)로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83	65.4
	여	44	34.6
학년	1학년	32	25.2
	2학년	37	29.1
	3학년	34	26.8
	4학년	24	18.9
전공	공학	64	50.4
	상경	14	11.0
	인문	37	29.1
	문화예술	9	7.1
	스포츠	3	2.4
창업동아리 소속여부	소속 안 됨	114	89.8
	소속됨	13	10.2
교내 창업 강좌 수강 횟수	수강한적 없음	65	51.2
	1과목	53	41.7
	2과목	7	5.5
	3과목 이상	2	1.6
합계		127	100.0

4.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증

<표 2>는 독립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크론바흐알파값을 정리하여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이다. Bartlett 구형성 검정 값이 425.676로 p값이 유의한 값을 가졌다. 혁신성 변수의 신뢰성으로 혁신성 1문항을 제거하였다.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크론바흐 알파 값이 0.6이상으로 나타나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인 기준치 0.6을 상회하기 때문에 각 요인의 신뢰성이 확보 되었다(Hair et al, 2010).

또한 고유값이 1이상이고, 측정변수의 요인적재치와 공통성이 0.7이상으로 적절히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Hair et al, 2010).

<표 2> 독립변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결과

설문문항	요인적재치			공통성	크론바흐알파
	1	2	3		
혁신성2	.022	.129	.900	.827	0.66
혁신성3	.281	.243	.753	.705	
진취성1	.198	.744	.162	.619	
진취성2	.117	.859	.167	.780	0.781
진취성3	.306	.782	.129	.722	
위험감수성1	.882	.147	.083	.807	
위험감수성2	.870	.255	.093	.830	0.854
위험감수성3	.785	.220	.180	.697	
고유값	2.378	2.115	1.496		
누적분산(%)	29.721	56.157	74.858		
KMO	0.784				
Bartlett 구성형검정	405.676(.000)				

<표 3>는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크론바흐알파값을 정리하여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이다. Bartlett 구형성 검정 값이 707.079로 p값이 유의한 값을 가졌다.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의 크론바흐 알파 값이 0.8이상으로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인 기준치 0.6을 상회하기 때문에 각 요인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Hair et al, 2010).

고유값이 1이상이고, 측정변수의 요인적재치와 공통성이 0.7 이상으로 적절히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Hair et al, 2010).

<표 3>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결과

설문문항	요인적재치		공통성	크론바흐알파
	1	2		
창업의지1	.431	.750	.749	0.872
창업의지2	.479	.768	.819	
창업의지3	.304	.861	.833	
창업행동1	.756	.484	.806	0.923
창업행동2	.829	.386	.836	
창업행동3	.818	.406	.834	
창업행동4	.826	.326	.789	
고유값	3.118	2.548		
누적분산(%)	44.544	80.942		
KMO	0.908			
Bartlett 구성형검정	707.076(.000)			

4.3. 확인적 요인분석 및 판별타당성 검증

<표 4>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모형의 적합도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치에 대부분의 통계값이 충족하며, 모든 측정항목의 요인 적재치가 0.5이상, 개념 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CR))가 0.7이상,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AVE)) 0.5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측정항목	요인 적재치	Composite Reliability (CR)	AVE
혁신성	혁신성2	0.549	0.805	0.686
	혁신성3	0.898		
진취성	진취성1	0.656	0.792	0.561
	진취성2	0.76		
	진취성3	0.814		
위험감수성	위험감수성1	0.804	0.818	0.601
	위험감수성2	0.906		
	위험감수성3	0.741		
창업의지	창업의지1	0.814	0.849	0.653
	창업의지2	0.888		
	창업의지3	0.803		
창업행동	창업행동1	0.875	0.876	0.638
	창업행동2	0.888		
	창업행동3	0.888		
	창업행동4	0.819		
Model fit	$\chi^2(df)=91.148 (80), p=0.185, \chi^2/df=1.139, IFI=0.990, TLI=0.987, RMSEA=0.033, CFI=0.990, NFI=0.926,$			
General standard	Significance of $\chi^2 (p>.05), \chi^2/df$ less than 3, IFI greater than 0.9, TLI greater than 0.9, RMSEA less than 0.1, CFI greater than 0.9, NFI greater than 0.8			

<표 5>는 판별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요인의 AVE의 제곱근 값이 상관계수 값보다 큰 값을 가짐으로 간 요인간의 판별타당성이 확인 되었다. 창업의지의 AVE의 제곱근 값이 상관계수 값보다 다소 작은 값을 가짐으로 창업행동 요인과 판별타당성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방법이 가장 엄격한 방법임을 고려하였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Hair et al., 2010).

<표 5> 판별타당성 분석

요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창업의지	창업행동
혁신성	0.828*				
진취성	0.542	0.749*			
위험 감수성	0.446	0.586	0.775*		
창업의지	0.456	0.516	0.473	0.808*	
창업행동	0.409	0.526	0.484	0.886	0.799*

* Square root of AVE

<표 6>과 같이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VIF값이 1.302~1.555로 10이하의 값을 나타냄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구분	공선성통계량	
	Tolerance	VIF
혁신성	.768	1.302
진취성	.643	1.555
위험감수성	.708	1.412
창업의도	.731	1.369

종속변수: 창업행동

4.4. 상관관계 분석

<표 7>는 변수 간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혁신성은 진취성, 위험감수성, 창업의지, 창업행동과 1% 유의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창업강좌와 5% 유의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취성은 위험감수성, 창업의도, 창업행동과 1% 유의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감수성은 창업의도, 창업행동과 1% 유의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동아리 참여여부는 창업강좌, 창업행동과 5% 유의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의지와 1% 유의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강좌 수강횟수는 창업의지, 창업행동과 5% 유의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의지는 창업행동과 1% 유의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상관관계 분석

변수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창업동아리	창업강좌	창업의지	창업행동
혁신성	1						
진취성	.423***	1					
위험감수성	.344***	.489***	1				
창업동아리	.073	.147	-.030	1			
창업강좌	.176**	.051	.080	.175**	1		
창업의지	.368***	.447***	.399***	.260***	.206**	1	
창업행동	.319***	.467***	.415***	.177**	.202**	.798***	1

4.5. 가설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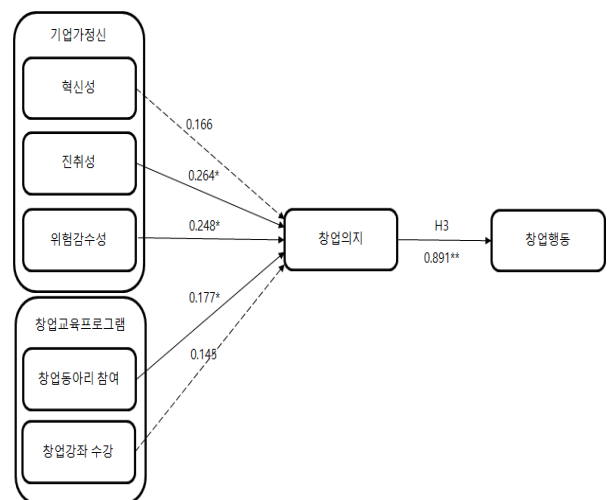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 8>과 같이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적합도는 대부분의 통계값이 일반적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결과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가설 H1-1은 기각되었다. 진취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β 값이 0.264, t값이 1.968(<0.05)로 나타나 유의수준 5%에서 가설 H2-1 채택되었다.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β 값이 0.248, t값이 2.207(<0.05)로 나타나 유의수준 5%에서 가설 H1-3 채택되었다. 창업동아리 참여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β 값이 0.177, t값이 2.215(<0.05)로 나타나 유의수준 5%에서 가설 H2-1 채택되었다. 창업강좌 수강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H2-2는 기각되었다.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β 값이 0.891, t값이 10.002(<0.01)로 나타나 유의수준 1%에서 가설 H3 채택되었다.

<표 8>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결과

가설	경로	β	t값	가설지지 여부
H1-1	혁신성 → 창업의지	0.166	1.452	기각
H1-2	진취성 → 창업의지	0.264*	1.968	채택
H1-3	위험감수성 → 창업의지	0.248*	2.207	채택
H2-1	창업동아리참여 → 창업의지	0.177*	2.215	채택
H2-2	창업강좌수강 → 창업의지	0.145	1.816	기각
H3	창업의지 → 창업행동	0.891**	10.002	채택
Model fit		$\chi^2(df=126.594(105), p=0.074, \chi^2/df=1.205, IFI=0.982, TLI=0.976, RMSEA=0.040, CFI=0.981, NFI=0.902,$		
General standard		Significance of $\chi^2 = (p>.05), \chi^2/df$ less than 3, IFI greater than 0.9, TLI greater than 0.9, RMSEA less than 0.1, CFI greater than 0.9, NFI greater than 0.8,		

*: $p<0.05$, **: $p<0.01$



*: $p<0.05$, **: $p<0.01$

<그림 2> 가설검증 결과

<표 9>는 AMOS의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이용하여 간접효과 분석을 한 후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부트스트랩(bootstrap) 샘플 수는 5,000개이다.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혁신성과 창업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H4-1 기각되었다.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진취성과 창업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H4-2는 간접효과가 기각되었다.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위험감수성과 창업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H4-3는 간접효과가 0.2215($p < .05$)로 5%유의수준에서 채택되었다.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창업동아리 참여와 창업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H5-1는 간접효과가 0.157($p < .05$)로 5% 유의수준에서 채택되었다.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창업강좌수강과 창업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H5-2는 기각되었다.

<표 9> 매개효과 검증 결과

가설	경로	β	가설지지 여부
H4-1	혁신성→창업의지 → 창업행동	0.148	기각
H4-2	진취성→창업의지 → 창업행동	0.235	기각
H4-3	위험감수성→창업의지 → 창업행동	0.221*	채택
H5-1	창업동아리참여→창업의지 → 창업행동	0.157*	채택
H5-2	창업강좌수강→창업의지 → 창업행동	0.129	기각

*: $p < 0.05$, **: $p < 0.01$

V. 결론 및 제언

청년실업의 문제는 국내의 경제상황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로 더욱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창업 연구는 이러한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장호·금융필, 2020; 김정근·양동우, 2016; 배병윤, 2021; 양준환, 2016; 이인숙·나영아, 2014; 이재훈, 2013; Barba-Sánchez et al., 2022; Haddad et al., 2021).

대학생들에게 창업은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진 현 시대에 취업의 대안일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는 무조건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대학에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창업동아리 지원과 교과프로그램으로 창업 강좌가 주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과 창업교육프로그램(창업동아리 참여, 창업 강좌 수강)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인 진취성($\beta = 0.264^*$), 위험감수성($\beta = 0.248^*$)이 각각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 대학생들의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창업교육프로그램의 창업동아리 참여($\beta = 0.177^{**}$)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강좌 수강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 창업동아리 참여를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표본 조사를 한 대학의 경우 이론형 창업강좌가 대부분이며 실습형 강좌가 적다. 이러한 대학의 상황이 창업강좌 수강이 창업 의지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학생의 창업의지($\beta = 0.891^{**}$)는 창업행동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창업행동을 높여 실제 창업을 유도하려면 창업의지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나타낸다.

넷째,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위험감수성($\beta = 0.221^*$)이 창업행동의 관계에서 유의한 간접효과가 나타났으며, 혁신성과 진취성은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요인 중에서 위험감수성을 높여 창업의지를 매개로 하여 창업행동에 도달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섯째,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창업동아리 참여($\beta = 0.157^{**}$)는 유의한 간접효과가 나타났으며, 창업강좌 수강의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학생들의 창업동아리 참여를 높여 창업의지를 매개로 하여 창업행동에 도달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기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창업교육프로그램(창업동아리 참여, 창업강좌 수강)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영향에 관한 새로운 연구모형을 제시 하였다.

둘째, 진취성의 베타값이 위험감수성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있어서 진취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위험감수성과 혁신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창업동아리 참여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창업강좌 수강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창업동아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창업강좌를 추가로 개설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대학생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가정신 요인 중 위험감수성을 높여 창업의지를 매개로 하여 창업행동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다섯째, 대학생들의 창업 동아리 참여를 높여 창업의지를 매개로 하여 창업행동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대학생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창업동아리 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여섯째,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대학생들의 창업 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 의지를 높여야 하며,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가정신의 하위 항목 중 진취성과 위험감수성과 창업교육프로그램의 하위항목에서는 창업동아리 참여가 중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뿐만 아니라 창업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교과부 등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게 기업가정신과 창업동아리 활성화의 중요성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창업 정책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기업가정신, 창업교육프로그램, 창업의지, 창업행동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는 종단적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더 치밀하게 구성된 연구를 통하여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표본의 창업동아리 참여 인원 비율이 10.2%로 높지 않기 때문에 창업동아리 참여를 통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창업행동과 창업의지의 판별 타당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이며, 창업행동 측정 설문 문항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

- 김장호·김용필(2020). 청년 창업의지의 영향요인과 창업행동 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7), 555-563.
- 김정곤·양동우(2016).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공모전 참여동기를 매개변수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4), 477-487.
- 박재환·안태욱(2016). 대학생 창업교육 특성과 창업의지와외의 관계 연구: 전공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1(5), 1-24.
- 배병윤(2021). 대학생의 개인 기업가지향성이 목표지향성과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6(4), 59-70.
- 양준환(2016).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Relational Suppor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Moderating Role of Relational Support. *경영교육연구*, 31(3), 181-198.
- 이인숙·나영아(2014). 대학 내 외식창업 지원요인이 대학생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관광연구저널*, 28(7), 155-166.
- 이성호·김정음·남정민(2020).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 분석을 통한 대학창업발전방안 연구: D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4), 151-160.
- 이재훈(2013). 대학생 창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8(2), 63-74.
- 대학알리미(2020). *대학정보공시*. Retrieved(2020.07.01.) from <https://www.academyinfo.go.kr>.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njum, T., Farrukh, M., Heidler, P., & Díaz Tautiva, J. A.(2020). Entrepreneurial intention: Creativity, entrepreneurship, and university support. *Journal of Open Innovation: Technology, Market, and Complexity*, 7(1), 11.
- Bae, B. Y.(2021).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Individu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Goal Orientati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of Korean College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6(4), 59-70.
- Barba-Sánchez, V., Mitre-Aranda, M., & del Brío-González, J. (2022).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European Research on Management and Business Economics*, 28(2), 100184.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Cho, Y. H., & Lee, J. H.(2018). Entrepreneurial Orientatio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Performance. *Asia Pacific Journal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12(2), 124-134.
- Covin, J. G., & Slevin, D. P.(1990).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2), 123-135.
- Grant, R. M.(1996). Toward a knowledge-based theory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7(S2), 109-122.
- Haddad, G., Haddad, G., & Nagpal, G.(2021). Can students' perception of the diverse learning environment affect their intentions towar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Innovation & Knowledge*, 6(3), 167-176.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7th ed.)*, NJ: Prentice Hall.
- Helm, S. T., & Andersson, F. O.(2010). Beyond taxonomy: An empirical validation of social entrepreneurship in the nonprofit sector.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20(3), 259-276.
- Kim, M. S., & Hunter, J. E.(1993). Relationships among attitudes, behavioral intentions, and behavior: A meta-analysis of past research, part 2. *Communication research*, 20(3), 331-364.
- Kim, J. G., & Yang, D. W.(2016). An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Entrepreneurship of Undergraduate Studen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otivation for Participating in the Start-up Idea Contest as a Mediato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4), 477-487.
- Kim, J. H., & Geum, Y. P.(202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influencing factors in one's youth and the entrepreneurial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7), 555-563.

- Krueger J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Lee, I. S., & Rha, Y. A.(2014). The Effects of the Foodservice Start-Up Support Factors on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College.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8(7), 155-166.
- Lee, J. H.(2013). A Study on the Ways to Vitalize Students' Entrepreneurship. *Asia Pacific Journal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8(2), 63-74.
- Lee, S. H., Kim, J. E., & Nam, J. M.(202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Start-up through the Analysis of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and Start-up Support System: Focusing on the Start-up Education and Start-up Support System of D Universit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4), 151-160.
- Lerner, M., Brush, C., & Hisrich, R.(1997). Israeli women entrepreneurs: An examination of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4), 315-339.
- Liñán, F., Urbano, D., & Guerrero, M.(2011). Regional variations in entrepreneurial cognitions: Start-up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Spain.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23(3-4), 187-215.
- Lussier, R. N.(1995). A Nonfinancial Business Success versus Failure Prediction Model for Young Firm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3(1), 8-20.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Park, J. W., & Ahn, T. U.(2016).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Education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1(5), 1-24.
- Smith, N. R., & Miner, J. B.(1983). Type of entrepreneur, type of firm, and managerial motivation: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life cycle theo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4), 325-340.
- Stevenson, H. H., & Jarillo, J. C. (2007). A paradigm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management. *In Entrepreneurship Springer, Berlin, Heidelberg* 155-170.
- Thompson, E. R.(2009). Individual entrepreneurial intent: Construct clarification and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ly reliable metric.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669-694.
- Tran, A. T., & Von Korflesch, H.(2016). A conceptual model of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 based on the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sia Pacific Journal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10(1), 17-38.
- Vesper, K. H., & Gartner, W. B.(1997). Measuring Progres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5), 403-421.
- Yang, J. H.(2016).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Relational Suppor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Moderating Role of Relational Support.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1(3), 181-198.
- University reminder(2020).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Retrieved(2020.07.01) from <https://www.academyinfo.go.kr>.

[부록] 설문지 측정문항

변수	설문문항	크론바흐알파	참고문헌
혁신성	1.1 나는 항상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등에 관심이 많다.	0.66	
	1.2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한다.		
	1.3 나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한다.		
진취성	1.1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것이라도 배울 수 있다.	0.781	Miller(1983), Covin & Slevin(1990), 김정곤·양동우(2016)
	1.2 나는 비록 어려운 일이라도 그것을 꼭 해결하길 원한다.		
	1.3 나는 고생을 하더라도 진취적인 일을 하고 싶다.		
위험감수성	1.1 나는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과감히 의사 결정을 한다.	0.854	
	1.2 나는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새로운 것을 추진하려고 한다.		
	1.3 나는 위험요소가 있는 모험이나 진기한 경험을 즐긴다.		
창업의지	2.1 나는 창업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있다.	0.872	Liñán et al(2011), Haddad et al.(2021)
	2.2 나는 창업을 하기 위한 직업적 목표가 있다.		
	2.3 나는 창업과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창업행동	3.1 나는 향후 사업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0.923	Lerner et al.(1997), 김장호·금융필(2020)
	3.2 나는 신규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고 있다.		
	3.3 나는 신규 사업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3.4 나는 신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고 있다.		

A Study on Entrepreneurship and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and Entrepreneurship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Byung Yun Bae*

Abstract

In today's era when the concept of a lifelong job has disappeared, starting a business is an essential consider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not only as an alternative factor in finding employment, but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tire life. Today, most universities in Korea are operat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such as entrepreneurship classes as a curriculum, and start-up clubs as a non-curricular program to foster entrepreneur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previous studies, entrepreneurship is a factor influencing the entrepreneurship int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and the entrepreneurship intention through a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participation in a start-up club, taking an entrepreneurship course) on entrepreneurship behavior. There are some empirical studies on whether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such as participation in startup contests affect the entrepreneurship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but not much compared to their importance. It is difficult to find an empirical study examining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education programs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and entrepreneurship behavior in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Therefore, in this study, one domestic university that operates a start-up club and a entrepreneurship course was selected and the onlin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all current students, and the collected 127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confirmed that initiative and risk-taking, which are sub-factors of entrepreneurship of university student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respectively, and that innov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in a start-up club, a sub-factor of the start-up education program,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hat taking a start-up course did no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ship behavior.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each of the factors of risk-taking, and participation in a start-up club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This study suggests that university students can increase their risk-taking, increase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participating in a startup club, and reach a entrepreneurial behavior through this as a medium.

KeyWords: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Entrepreneurship Intention, Entrepreneurship Behavior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lla University, byungyun.bae@halla.ac.kr